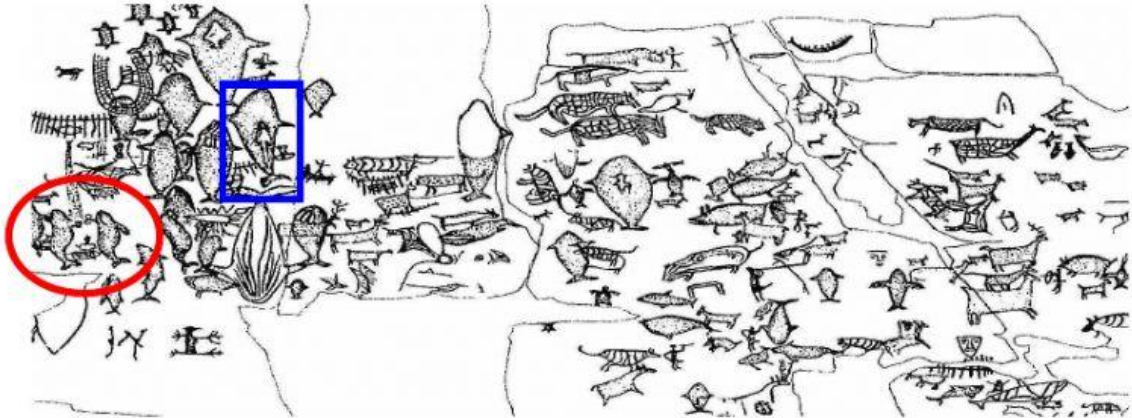


학년 반

이름

<탐구 과정>: <사진1>~<사진4>를 자세히 관찰하고,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.

<사진1>



1. <사진 1>은 경상남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는 높이 4m, 너비 10m의 절벽암반에 새겨져 있는 울산 반구대 ()이다. 이처럼 종이가 발명되기 전 바위에 새긴 그림을 ()라 한다.
2. <사진 1>의 여러 고래 중 V자로 물기둥을 뿜어 내는 ○로 표시한 고래의 이름은 ()이다.
3. <사진 1>에서 □로 표시한 고래는 작살에 찢려 있어 당시 사람들이 고래를 ()했음을 알 수 있다.

<사진 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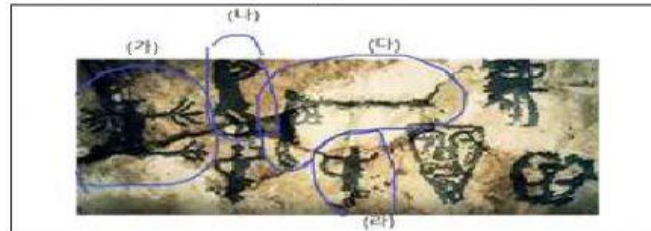


<사진 3>



4. <사진 2>는 경남 창령에서 발굴된 8천 년 전의 ()와 ()이고, <사진 3>은 울산 황성동에서 발굴된 7천 년 전 작살을 맞은 고래 뼈이다.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7~8천 년 전에 ()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()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<사진 1>의 연대도 7~8천 년 전, 즉 ()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.

<사진 4>



6. <사진 4>의 (가)~(라)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자.

	(가)	(나)	(다)	(라)
학자들	()과 ()을 과장되게	멀리 고래를	길다란 ()를	()을 추는
의견	크게 표현한 제사장	찾는 모습	부는 모습	모습